'팬시적' 출판의 확대

이중한
서울신문 논설위원·출판평론가

정병규의 북 디자인 전시회가 8월1일부터 10일까지 갤러리 지현에서 열렸다. 나는 그 자리에서 "이만하면 우리의 창조적 문화이벤트라고 말할 수 있겠다"고 말했다. 문화이벤트는 근자에 유행어처럼 쓰이고 있지만 그저 그만그만한 이것저것을 주워모아 이벤트적 모양만 내고 있는 것들이 더 많아서 문화이벤트마저 무게와 깊이는 사라지고 가벼움과 무의미한 낭비가 쌓이고 있다는 생각 때문이었다.

이 전시회를 알리는 신문 인터뷰에서 정병규는 아주 간결하게 한마디 했다. "우리에게는 문방구 팬시같은 북 디자인마저 있다." 나는 이 말에 누구보다도 동감한다. 그리고 나는 그의 표현을 더 확대할 수 있다.

책표지 뿐만 아니라 책 내용까지도 문방구 팬시적 기획과 글쓰기, 그리고 독자의 책사기가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이렇게 말할 때는 당연히 책 제목을 제시해야 하겠지만 우리의 풍습이 그렇지는 않다. 그러니 어벙하게 말하자면 이렇다.

첫째, 그 많은 인생론, 특히 20대 대중문화 연예인들의 인생철학, 요즘엔 컴퓨터배우기도 연예인들의 운동장으로 넘어갔다. 나는 이 책들의 의미 전체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 누구에게나 글쓰기와 책내기는 자유이다. 단지 세상 모두에서 베스트셀러가 되는 인생론이나 인생에세이들은 얼마나 가혹한 평가와 역사의 비평을 통해서만 선택되고 통용되고 있는가를 기억하려 할 뿐이다.

'팬시적' 출판의 운명은 짧게 지나가고 완전히 잊혀진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둘째, 그야말로 팬시적 감각의 소설들. 적당히 우아해 보이면서 자못 심각한 어휘들을 사용하면서, 그러나 결국은 아무것도 남길 것도, 기억할 것도, 책임질 것도 없는 잡담들이 그저 재담처럼 모여 있는 소설들. 그런 소설들이 점점 더 잘 팔리고 있다.

셋째로는 의미와 무게가 있는 책에서도 이상하게 팬시적 반응이 커지고 있는 경우가 있다. 이들은 지금 문화인류학 계열의 책들과 성문화 이론서 분야에서 확산되고 있다. 이들 책의 저자들은 물론 당대의 석학이고, 그래서 읽으려면 때로 저자가 사용하는 기본용어의 개념부터 이해하기가 어렵다는 느낌을 받게 되는데, 그러나 곧잘 팔리고 있다. 나는 이것이 아주 잘 읽히고 있는 결과라고 보지는 않는다. 60년대 젊은이들이 단지 그것밖에 없어서 《타임》지를 들고 다녔던 '들고 다니기' 팬시행위가 아닐까 보고 있다.

이게 끝이 아니고 하나 더 있다. 지식의 요약서들, 여기에는 역사적 사건의 단호한 결론과 문화현상에 대한 단편적 평가도 포함된다. 이 책들이 팔리는 이유를 이해하기는 쉽다. 너무 오랫동안 우리는 입학시험 답안 길이로 정리된 지식에 훈련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니 세상의 지식이 모두 모범답안처럼 짧아야 하고 오직 하나의 정답이어야 할 것처럼 생각하는 것에 대해 누구도 시비할 수는 없다.

그리고 더욱 자연스럽게 출판도 팬시적이 되는 데 이의를 제기할 수도 없다. 답답한 문제는 딴곳에 있다. 눈앞에 와 있는 21세기 책읽기의 효용은 단지 높은 수준의 교양을 위해서가 아니라는 의견이 모아지고 있다. 어떤 것인가. 문제를 해결할 능력을 위해서이기보다 한차원 더 높여 어떤 것이 문제가 되는지 아닌지를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위해, 스스로 동기를 유발할 뿐 아니라 다양한 분야를 종합하여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위해, 그리고 독창적 창조력을 위해 '읽기'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는 물론 교육의 책임이다. 그러나 교육의 기반에 출판이 있다. 이 새로운 능력을 위한 책이 지금 여기저기 산적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찾아 읽는다는 일은 어렵다. 우리에게는 아예 거부되고 있다는 느낌이다.

그러므로 독자가 읽고 반응이 있을 만한 책만 내는 일은 출판의 현재를 사는 일이긴 하나 출판의 미래를 확보하는 일은 아니다. 문방구 팬시의 운명이란 언제나 짧게 지나가고 완전히 잊혀진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 ❖

출판저널

통권 제197호/1996년 8월20일 발행

발행인 - 정진숙
편집인 - 전병석
인쇄인 - 이일수
편집위원 - 권영빈 김문환 송상용 이중한
편집주간 - 이승우
편집장 - 김지원
기자 - 박남정 허 연 최성일 이현주
디자인 - 윤정자
사진 - 김지욱

업무부장 - 윤동호
업무·광고 - 이희천 김유희 김동필 천창환

(재)한국출판금고
상임이사 - 최학수
총무부장 - 이정수
전화 732-1434~5

등록 1987년 6월 9일-다 435
대체구좌 010041-31-2826477
발행처 - (재)한국출판금고
인쇄처 - 평화당인쇄주식회사

출판저널 - 110-190 서울 종로구 사간동 105-2 출판문화회관 2층
전화 732-1431~3 FAX 722-1174
하이텔 chulpan 천리안 book732

《출판저널》은 신문윤리강령 및 주간신문윤리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출판저널》 정기구독 안내

매월 5일과 20일자로 발간되는 《출판저널》은 정기구독으로 받아 보시는 것이 빠르고 편합니다.

본사의 지로용지로 1년차 구독료 30,000원을 송금하시면 입금된 날짜의 해당호부터 댁이나 사무실로 우송해 드립니다. 본사의 지로용지가 없으신 분은 전국 각 은행(농협·수협·축협 포함)의 A지로용지에 본사 지로번호 3008669와 금액, 주소, 성명을 명기하여 불입하거나 우체국 대체구좌 010041-31-2826477을 이용하십시오.

공급:한국출판협동조합
서울 마포구 신수동 448-6
716-5616~9, 716-5621~3

"최고가 아니면 포기하라"

선수기질이 있는
편집자와 디자이너를
모십니다

대우: 국내 최고의 대우
요건: 국내 최고의 실력
(potential, O.K.)
채용: 1) 이력서
2) 자기소개서
3) 작품목록을 아래
사서함 「인사담당자」앞으로
보내주시면 연락드리겠습니다.

20th Century Plus
20세기플러스
a publishing Co.
스위스그랜드 호텔 앞
Ⓣ(02)395-1945 Ⓕ(02)396-3964
서울 서대문구 홍제1동 339-2
서울 광화문우체국 사서함 1132호
㊥110-611

"出版社 賣買·仲介"
出版社買入
판권·필름·원고
잔고·재고매입
斗 星 文 化
서울·종로구 숭인2동 202-10
(서웅빌딩 207호)
TEL : (02) 232-0348~9
FAX : (02) 233-0403

— 출판저널 합본호 판매안내 —

- 합본1호(낱권1~10호) 5,000원(판매)
- 합본2호(낱권11~20호) 5,000원(판매)
- 합본3호(낱권21~30호) 5,000원(판매)
- 합본4호(낱권31~40호) 5,000원(판매)
- 합본5호(낱권41~50호) 5,000원(판매)
- 합본6호(낱권51~60호) 9,000원(판매)
- 합본7호(낱권61~70호) 10,000원(판매)
- 합본8호(낱권71~80호) 10,000원(판매)
- 합본9호(낱권81~90호) 10,000원(판매)
- 합본10호(낱권91~100호) 10,000원(판매)

* 구독의 불편·개선사항이 있으시면 전화·서신등을 통해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우편료는 합본제작비로 인해 수취인 부담관계로 직접방문, 구입하시면 유리합니다.